

우리 사회 '행복 1g' 더하는 프로그램

사 | 과 | 나 | 무

김 태 현 | MBC '사과나무' 제작 PD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사과나무>라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시청소감들을 올린다. 도대체 <사과나무>가 무슨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걸까?

한 그루 사과나무 같은 방송

3개월 전, 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고 제작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 무엇보다 세상을 환하고 밝게 만들 수 있는 내용,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 세상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내용. 그러나 새로움과 희망을 어떻게 생산해 낼지 난감했다. 한 두 해 방송한 것도 아닌데, 늘 새로움을 찾기로 고통과 고뇌를 동반한다.

행복 1g 더하기

우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기로 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나쁜 소식들이 정말 많다. 그러나 정말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걸까? 자기만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쳐도 되는 걸까? 살기 어렵다고 쉽

게 삶을 포기해도 괜찮은 걸까?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을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평범한 사실에서 '희망'이라는 말을 우리 프로그램의 화두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희망은 곧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 만들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작진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행복과 불행이 반반인 저울에서 행복 쪽에 단 1g이라도 더 얹으면 그 저울은 행복 쪽으로 기울다는 사실. 우리 사회에 '행복 1그램'을 더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사과나무 이기를 소망한다.

삶을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장학

금', '나의 소중한 사과나무' 그리고 '모유를 먹입시다!'의 세 개의 꼭지들이 모여 방송된다.

'사과나무 장학금'에선 과외는 커녕, 학원에 한번 가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되도록 장학금을 주는 코너다.

여기엔 가난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연마해 단단하고도 투명한 수정들로 만든 감동이 가득 녹아 있다.

'나의 소중한 사과나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 있는 순간 순간을 아끼며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가족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삶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준다.

암에 걸린 아내를 지극하게 돌보는 이도식씨, 선천적인 병으로

키가 1미터밖에 안되지만 항상 웃으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쓰는 오아볼로씨 이야기는 슬픔을 넘어 감동 그 자체다. 감동은 같은 느낌을 가질 때 저절로 생겨나는 것.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반성하게 된다. 한순간이라도 삶을 방치한 적이 없는지를...

‘모유를 먹입니다.’

‘모유를 먹입니다’는 모유가 당연한 아기들의 음식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모유 대신 분유가 아기들의 대표적인 음식이 된 현실을 바꾸자는 캠페인이다.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16%라고 한다. 참고로 독일과 스웨덴은 90%, 미국은 50%, 일본은 4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걸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비롯 많은 단체들이 꾸준히 모유캠페인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모유의 장점은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니세프(UNICEF), 미국 소아과학회 등 유관기관에서 이미 오래 전에 검증이 끝난 상태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직도 모유가 왜 좋은지 알려지지 않았다. 아기에게는 엄마젖을, 송아지에게는 소젖을 먹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조물주의 뜻일텐데...



분유회사들의 치열한 광고, 의사들의 왜곡된 지식, 잘못된 상식들... 열거하자면 끝도 없지만 우리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바꾸고자 모유캠페인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제작하면서 필자도 놀란 사실은 모유에 관해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이었다. 이를테면, 모유는 6개월 후부터는 영양가가 없다거나 젖먹인 후에는 유축기로 남은 젖은 꼭 짜줘야 한다거나, 원래 젖양이 적어서 젖을 먹이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분유가 더 과학적으로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준다거나 하는 등등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 많았다.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방송

〈사과나무〉에서는 이런 잘못된 상식을 바꾸고, 마음대로 젖을 먹일 수 없는 환경을 바꾸어, 모유를 오랫동안 먹이는 엄마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낯은 의식도 전환하여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엄마들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는 장차 국가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다.

건강은 물론이고 모유 먹는 아기가 분유 먹는 아이에 비해 아이큐(IQ)가 8~10이 더 높다고 하지 않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IQ는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모유캠페인이 더 확산되면 곧 세계1위를 넘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더 이상 화장실에서 모유를 먹이지 않도록 외국처럼 자연스럽게 아무 곳에서나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 날까지 분유 먹이는 엄마들의 항의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모유캠페인을 계속하리라 다짐해 본다. 건강과 희망, 행복의 고지가 바로 저기 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않은가.